

일본이 기독교를 선택하게 될 날

앤디 미코

채플 웨딩 붐(역자 주;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붐)을 선교사는 어떻게 보나

기독교식으로 드리는 결혼식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 때에 많은 목사와 선교사는 단순히 화려한 퍼포먼스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다. 채플 웨딩이 유행하는 주요한 이유는 신부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를 걸으며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날의 여왕이 되는 것에 있는 듯하다. 이런 단순하고 표면적인 이유는 목사들을 안타까와하게 할 지 모르지만, 동시에 많은 목사와 선교사는 이처럼 전례 없는 기회에 이 소망을 이루어 보려고 생각한다.

채플 웨딩의 유행은 80 년대에 야마구치 모모에나 마츠다 세이코(역자주;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가수)가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던 것이 발단이였다. 최근 결혼 잡지 <제쿠시>에 의하면 일본의 결혼식의 70 퍼센트는 채플 웨딩으로, 그 비율은 종래의 전통적인 결혼식을 크게 뛰어넘고 있다. 오늘날의 신부는 레이스가 달린 순백의 드레스, 빛나는 왕관, 꽃을 선호한다. 유니히토에(역자주;일본의 전통적인 결혼식에서 입는 의상)를 몸에 두르고 츠노카쿠시(역자주;일본의 전통적인 결혼식에서 머리에 쓰는 것)를 쓰는 것보다.

많은 커플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 본 적이 없고 기독교식 결혼식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사모아에서 온 선교사 토네 파야라가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에게 넘겨 줄 때 신부의 베일을 올려버리는 바람에 웃음을 참느라 숨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적도 있었다. 하와이 출신인 오키나와의 선교사 샘 이시카와는 결혼식에 필수적인 키스가 일본에서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킁킁거리는

웃음을 산다든가 신랑 신부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한다고 말한다. 키스하는 것을 주저하여 그냥 악수로 대신하는 커플도 있다.

목사와 선교사의 사이에서도 이러한 결혼식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진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몇 십년이나 기독교에 대해 저항이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본다. <만약 일본의 교회가 이 기회를 살려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미신자의 바람을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나라의 크리스찬 인구는 배가 될 것이다>라고 선교사 존 라이트는 말한다. 매 주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3 배 가까운 사람이 채플 웨딩에 모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허튼 소리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목사와 선교사는 개심자가 생겨나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이혼율은 최근 10 년이상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기에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이 산업 도시 국가 중에서도 결혼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나라의 하나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혼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1년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해 5 명당 1 명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육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몇 년에 걸쳐 기다렸던 가정내 폭력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만약 결혼의 축복이 부부생활로 측정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본은 여기서도 굉장히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 겨울에 출간된 <여성 자신>에 의하면 30 대 부부의 55 퍼센트는 섹스레스라고 한다.

주례자에 관해서 말하자면 주례자에 있어서의 양과 염소(또는 양의 털을 쓴 늑대)는 <결혼전 카운셀링>에 의해 구별할 수 있는 듯하다. 진정한 목사와

선교사는 카운셀링을 하고자 하나 호텔이나 웨딩 관련 회사의 협력을 얻기가 좀처럼 어렵다. 그래서 카운셀링을 하지 못 한다면 주례도 하지 않는 목사들도 있다. 오오사카지구의 선교사는 서로 협력하여 1 시간의 카운셀링을 하지 않는다면 결혼식 주례를 하지 않겠다고 결혼 산업체에 압력을 가했다.

결혼식의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 목사는 일요일에 결혼식을 인도할 수가 없다. 주례자의 수가 극도로 부족하여, 교회가 아닌 결혼산업체가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서서 영어교사를 고용하고 있다. 회사가 전국적으로 채플(교회당)을 짓고 빅토리아 시대의 200 개 이상의 영국 국교회의 유물을 경매로 사서 수입한다. 채플 웨딩에는 예배당 2 층의 십자가가 그려진 스탠드 글래스로 된 창문, 찬송가를 부르는 성가대, 강단에 펼쳐진 특대 성경, 모두가 갖추어져 있다. 목사를 포함한 크리스찬을 제외한 모든 것이.

최근까지 동경에서는 결혼 관련 회사가 500 명 이상의 안수를 받지 않은 외국인과 200 명이 넘는 성직자가 아닌 일본인을 주례자로서 고용하고 있다. 케니 죠셉은 이 상황을 한탄하여 <가짜 선교사가 우리의 이름에 오명을 끼치고 있다.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여, 고향의 시카고에 가서 90 명의 대타 채플렌을 훈련하여 결혼식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가짜 목사와 선교사를 처벌하는 법률이 엄격해졌다. 선교사 비자 없이 결혼식을 집행하면 30 만엔의 벌금, 3 년의 투옥, 또는 국외추방을 당하게 된다.

진짜 선교사가 격는 사례에 대한 유혹도 크다. 토요일에 3 시간, 3 번의 결혼식을 집행하면 주례자는 평균 55,000 엔의 사례를 받는다. 일도 간단하고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기에 많은 선교사는 결혼식에만 전념한다. 이런 유행에 휘말려 약 200 명의 선교사를 잃었다고 센다이의 네이슨 마이켈슨은 탄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일하는 것은 실은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는 돈이나 봉사나 하며 선교사의 동기를 추적하지만, 이제까지 2000 번의 주례를 한 오오이타에서 사역하는 남아프리카의 필립 빗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은 보수를 개인적으로 받지 않고 선교 활동비로서 선교 단체에 바로 보내고 있다. .

이 현상은 선교사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교도가 채플을 짓고 많은 이교도가 모여 설교해 달라고 간청한다. 은퇴한 선교사 도일 북은 <하나님이 세상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다>하고 감격했다.

이 유행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뉴질랜드에서 온 70 세가 되는 북해도의 선교사 리처드 그들은 위트있게 이렇게 대답했다. <이 유행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또는 칸누시(역자주;일본 신도의 의식을 거행하는 신관)들이 수입원이 적어져서 곤란하다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실질적인 열매는 아주 적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좋은 영향은 나타나고 있다. 야마가타의 교회에 다니는 여성은 기독교에 대해 막연한 개념을 가지기 전에 지역 교회의 목사한테서 결혼식 주례를 해 받았다. 그 주례에 감동해 그녀는 그 후에 세례를 받았다. 작년 여름, 그 주례를 했던 목사는 그녀의 회심을 알지도 못 한채 돌아가셨다.

오늘날 결혼 생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전망은 얼마나 될까? 전국의 선교사는

그것에 대해 비관적이지만, 한 가지에 관해서는 일치하고 있다: 기독교식 결혼식은 영원히 남는 것을 얻기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일지도 모른다.